[UCI]I804:24011-200000241068

2011年 2月
敎育學碩士(日語敎育)學位論文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경어표현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金 玟 希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경어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norific Expressions in Highschool Japanese Textbook

2011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金 玟 希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경어표현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朴 靑 國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日語敎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金 玟 希

金玟希敎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　授　金仁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　授　朴靑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　授　曺榮錫　印

2010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 序論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2

제2장 현대 일본어의 경어 표현 ····· 3
2-1. 경어의 정의 ····· 3
2-2. 경어의 분류 ····· 6
2-3. 경어의 특징 ····· 8
2-4. 한·일 경어표현의 차이 ····· 10

제3장 일본어 교과서의 경어표현 분석 ····· 11
3-1. 존경의 경어표현 ····· 12
3-2. 겸양의 경어표현 ····· 30
3-3. 정중의 경어표현 ····· 38
3-4. 교과서별 경어표현의 제시 실태 ····· 41

제4장 結論 ····· 46
參考文獻 ····· 49

표목차

<표 1>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Ⅰ,Ⅱ ····· 3
<표 2> 경어의 분류 ····· 6
<표 3> 존경어 「대명사」 분석 ····· 15
<표 4> 존경어 「접두사」 분석 ····· 17
<표 5> 존경어 「접미사」분석 ····· 19
<표 6> 존경어 「접두사+명사+접미사」분석 ····· 21
<표 7> 「なさる」분석 ····· 22
<표 8> 「くださる」분석 ····· 23
<표 9> 「いらっしゃる」분석 ····· 24
<표 10> 존경어 「동사의 어휘적 용법」 분석 ····· 25
<표 11> 존경어 「동사의 문법적 용법」분석 ····· 29
<표 12> 겸양어 동사의 분포 ····· 34
<표 13> 겸양어 보조동사의 분포 ····· 37
<표 14> 겸양어 접두사 「お·ご」의 분포 ····· 38
<표 15> 정중어 접두사 「お·ご」의 분포 ····· 41

그림 목차

<그림 1> 지학사 Ⅰ, Ⅱ ····· 41
<그림 2> 대한교과서 Ⅰ, Ⅱ ····· 42
<그림 3> 천재교육 Ⅰ, Ⅱ ····· 43
<그림 4> 블랙박스 Ⅰ, Ⅱ ····· 44
<그림 5> 진명출판사 B - Ⅰ, Ⅱ ····· 44
<그림 6> 교학사 A - Ⅰ, Ⅱ ····· 45

A Study on the Honorific Expressions in Highschool Japanese Textbook

Kim Min-Hee
Adviser : Pro. Park Chung Kuk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Honorific expression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social and human relations in contemporary society. Although there almost disappear social-standing relations in modern society, honorific expressions are ignorable, indispensible elements in a society with social rules that regulate social standing. They have an important role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at a correct and appropriate use of them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speaker and listener can cause harmonious human relations. The Japanese language has developed honorific expressions like the Korean language has. However, the system of honorific expressions in Korean is constant regardless of situation and person. By contrast, it in Japanese differs from situation to situation—scenes and mutual relations—which puts Korean learners of Japanese in difficulties and confusion.

This paper surveys and analyzes the honorific expressions shown in textbooks used at high schools. Because except for common features between two languages, when Korean learners of Japanese speak in an honorific expression,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in operation although they seem similar, this paper surveys the definitions of the honorific expressions, the studies of classification by schola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honorific expressions.

This analyzes the frequencies of honorific expressions by each textbook and by kind. It classifies the honorific expressions into respecting expressions, humble

expressions, and courteous expressions,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the method of classifying honorific expressions. And this paper studies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honorific expressions and Japanese ones.

Like this, because the structure of Japanese honorific expressions are complex and thus it is not easy for even Japanese people to have correct understanding and give a correct expression of honorific expressions, this paper addresses methods for efficiently instructing Japanese teachers about Japanese honorific expressions and the considerations in teaching them.

At present, a period of transition from the 7th National Curricula to the 8th National Curricula,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ntinuous studies and publish books by teachers of Japanese concerning what teaching methods are effective in instructing in Japanese honorific expressions and what should be complemented for effective textbooks of honorific expressions.

제1장 序論

1. 연구 목적

현대사회에서 '경어'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상대에게 존경을 나타내기도 하고, 격식을 차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상냥함을 나타내기 위해, 또한 친소(親·疎)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신분적인 상하관계는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인 룰 안에서의 상하관계에서는 경어란 무시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또 경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경어가 잘 발달된 언어에 속한다.
일본어의 경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경어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습득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경어 표현은 유사한 점이 많아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있어 경어가 쉽게 여겨질지 모르나, 한국어의 경어는 상황이나 인칭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어표현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일본어의 경어는 장면이나 상호관계에 따라 경어 사용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 경어법은 연령차를 중시하는 것이고, 일본어의 경어법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은 이에 따른 혼동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교재로 쓰이는 제 7차 교육과정의 현행 고등학교 Ⅰ,Ⅱ로 구성된 6종(Ⅰ,Ⅱ 총12권)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학교문법에 따라, 경어를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로 분류하여, 품사별 경어형태의 특징을 살펴보고, 교과서에 수록된 경어표현의 예문 제시와 각각의 빈도, 비율 등으로 정리하여 분류하기로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 화자 입장에서 일본어의 경어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경어체계가 비슷한 경우에도 그것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 경어의 체계를 보다 더 자세히 고찰하고자 제 2장에서는 경어의 정의, 학자들의 연구 분류, 현대 경어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 사용된 경어표현에 대한 연구로서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지학사Ⅰ,Ⅱ, (주)대한교과서Ⅰ,Ⅱ, (주)천재교육Ⅰ,Ⅱ, (주)블랙박스Ⅰ,Ⅱ, (주)진명출판사Ⅰ,Ⅱ (주)교학사Ⅰ,Ⅱ)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일본어 교과서 12종중에서Ⅰ,Ⅱ로 구성된 6종(총12권)교과서를 자료로 하여 교과서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를 포함, 교과서 전 부분을 조사범위로 삼았다.

각 교과서별 경어표현의 종류별 출현빈도의 횟수를 비율로 분석 했으며 ,경어분류법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의 논의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존경표현, 겸양표현, 정중표현으로 분류 조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분석 자료로 사용된 6종의 일본어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1>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Ⅰ,Ⅱ

출판사	저자명	구분	단원	표기	페이지
지학사	김효자·박재환·정용기	Ⅰ	12	지학Ⅰ	214
		Ⅱ	10	지학Ⅱ	207
대한교과서	김숙자·이경수·어기룡·사이토 아사코	Ⅰ	12	대한Ⅰ	220
		Ⅱ	12	대한Ⅱ	204
천재교육	양순혜·이원복·위혜숙·이향진	Ⅰ	12	천재Ⅰ	215
		Ⅱ	11	천재Ⅱ	215
블랙박스	한미경·조성범·이영환	Ⅰ	10	블랙Ⅰ	204
		Ⅱ	10	블랙Ⅱ	215
진명출판사	유길동·여선구·조문희 가이자와 도시코	Ⅰ	12	진명B-Ⅰ	224
		Ⅱ	10	진명B-Ⅱ	183
교학사	이봉희·김남익	Ⅰ	12	교학A-Ⅰ	202
		Ⅱ	10	교학A-Ⅱ	195

제2장 현대 일본어의 경어표현

2-1. 경어의 정의

경어법[1]은 한국과 일본, 즉 양국어에 있어 매우 특별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宮地裕[2]의 '언어의 대우법 실태'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어에는 화제의 인물을 높이는 존경어, 자신을 낮추어서 화제의 인물을 높이는 겸양어, 화제가 되는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 경의를 나타내는

1) 한국어 경어법은 그 동안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불리었다. 말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尊卑法, 恭遜法, 주체를 높이는 법을 尊敬法,객체를 높이거나 특별히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법을 謙遜法, 謙譲法이라 하는 일이 있고, 주체높임법과 자기 낮춤을 아울러 恭待법, 敬譲法이라 하기도 하며, 이 모든 높임법을 敬語法,尊待法 ,待遇法 이라 부르기도 한다.

2) 宮地裕(1981),「敬語史論, 講座日本語学9」, 明治書院, p.26에서 언어의 대우법 실태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정중어 등이 있다.

일본어의 경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 화자·청자·화제의 인물사이의 상하·친소 등의 관계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언어형식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좀 더 좁은 의미로 윗사람(또는 관계가 적은 사람)에 대한 특정의 말투를 경어라고 한다. 또한, "존경의 기분을 나타내는 말", "상대를 공경하는 기분을 나타내는 말"을 경어라고 한다.[3)]

한·일 양국어에서 경어를 어떻게 사용하여 표현 할지를 화자에게 결정하게 하는 주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사회적 요인
(2)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는 친족관계, 사회적 지위, 연령, 남녀 성별 등을 들 수 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친소(solidarity)관계가 있어 이 두 차원의 여러 요인이 서로 작용하여 한·일 양국어의 경어 형식이 규제되는 것이다. [4)]

한국어와 일본어는 세계 여러 나라말 중에서도 특히 경어가 발달된 언어로 알려져 있고 경어법이나 경어의 운용 면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외국인들에 비해 우리가 일본어의 경어의 특질을 이해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경어를 적용시키는데 있어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어 표현이란 대표적으로 상대에게 경의나 정중함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좁

	일본어	한국어	자바어	베트남어	티벳어	몽골어	순다어	힌디어	체코어	중국어 영어등
尊敬語	○	○	○	○	○	○	○	○	△	(△)
謙讓語	○	○	○	○	○	○	○	(○)	×	×
丁寧語	○	○	○	○	○	×	×	×	×	×

3) 辻村敏樹,『日本語の敬語の構造と特色 』『岩波講座 日本語,4, 敬語』, 岩波書店, 1977,p.45~94
4)서울大學校語學硏究所, 『韓日語對照分析』, 明志出版社, 1988, p.248

은 의미로서의 경어라고 부르는 존경어나 겸양어 등과 같은 언어 형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식 경어(lexical politeness)가 있고,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음성의 인토네이션이나 포즈 등과 같은 운율적 특징에 의해서 나타나는 음성경어(phonetic politeness), 그리고 말을 할 때 수반되는 시선이나 얼굴표정 등과 같은 비언어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경어(nonverbal politeness)가 있다.

이처럼 경어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경의나 정중함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세 개의 경어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형식경어(lexical politeness)를 중심으로 경어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다.

경어에는 우선 상하관계를 식별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해서 사원이 부장에게「おはようございます。」라고 인사를 하면 부장은 대개「おはよう」라고 인사하는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아침인사를 보고 우리는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로 경어에는 품위유지를 위한 기능이 있다. 상하관계나 친소도 등을 잘 고려해서 경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어에 관한 상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하게 경어를 사용하면 당사자를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보이게도 한다.

세 번째로 경어에는 자기방어의 기능이 있다. 초대면의 사람이나 자신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경어를 쓰는데 이것은 존경심보다는 자기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방어의 차원에서 쓰는 것이다.

네 번째로 경어에는 친애표현의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기에게「お母さんが作ってあげましょうか。」라고 했을 때의 자신을「お母さん」이라고 표현 하는 것과 선생님이 학생에게「中田くん」하고 불렀을 때의「くん」이라고 하는 인칭접미사는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어는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기능을 발휘해 왔다. 하지만 사회가 능률이나 효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산업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경어는 윗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장자에 대한 존대의식이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추세이다. 또한, 이해관계에서나 점원과 손님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역할 등이 새로운 경어사용의 기준으로 작용 하는 등, 경어의식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 경어의 분류

일본어 경어의 분류방법은 학자에 따라서 그 분류 기준이나 내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자경어(화자와 대면한 청자를 높이는 것), 소재경어(성질상 화제중의 인물을 높이는 것)로 나눈 2분류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丁寧語)로 나눈 3 분류가 있고, 3분류에서 존중어, 미화어를 추가해 나누어 연구한 학자도 있다.

각 분류별 특징을 간단히 정의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경어의 분류

2분류	3분류	5분류	특징
소재경어	존경어	존경어	상대의 행동, 상태, 성질, 소유물을 높이는 표현
	겸양어	겸양어	자신을 낮춤으로서 상대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
대자경어		정중어	청자가 화자보다 상위임을 나타냄
	정녕어	정녕어	청자가 화자보다도 상위임을 나타냄. 대표적인 것으로 「です」「ます」「ございます」등이 붙음
		미화어	품위 있는 말씨

1. 山田孝雄

山田孝雄(1924)는 경어를 문법적 문제로 다루어 경칭과 겸칭으로 크게 나누었다.[5)]

5) 山田孝雄, 『敬語法の研究』宝文館出版, 1924, p.28

‘경칭’은 청자 혹은 제 3자에게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겸칭’은 타인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서 주로 제 1인칭인 화자 자신을 가리키거나 또는 화자가 속해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이는 제 1인칭 句에는 ‘겸칭’ (「手前」,「いただく」,「です」)등을 사용하고 제 2·3인칭 句에는 ‘경칭’(「あなた」,「おっしゃる」,「くださる」) 등을 사용하는 것을 경어법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알려져 있는 정중어에 대한 설정이 없다는 점이다. 정중어의 대표적인 형태인 조동사「です」가 겸칭에 속해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 吉岡郷甫

吉岡郷甫는 경어를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로 3분류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현행의 학교 문법도 이 분류에 따르고 있다.[6] 吉岡는 경어를 경어동사와 경양(敬譲)상의 조동사로 나누어 타자(他者)에 관하여 높여 말하는 것을 ‘존경어’로, 자기나 자기 측의 것에 관해 낮추어 말하는 것을 ‘겸양어’로, 말투를 정중하게 하는 것을 ‘정중어’로 구분하였다. 존경어로는, 「おっしゃる」,「なさる」,「くださる」,「お読みになる」,「読まれる」,「お読みくださる」,「お言葉」등이 있고 겸양어에는 「いたす」,「いただく」,「うかがう」,「さしあげる」,「お招きする」,「お返事」등이 있으며, 정중어는「行きます」,「本でございます」,「お菓子」등이 속한다고 하였다.[7]

3. 宮地裕

宮地裕는 종래의 3분류법인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의 각 명칭에 辻村敏樹說의 ‘미화어’를 덧붙이는데 「いたす」,「まいる」類는 ‘丁寧語’라고 이름 지었다.

---

6) 北原保雄4名,「前掲書」, p.320
7) 北原保雄4名,「前掲書」, p.320

宮地裕(1968)의 분류[8]를 보면, '존경어'는 화제의 사람의 행위, 소유 등에 대해서, 화자가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경어이고, 또한 '겸양어'는 화제의 하위자의 상위자에 대한 행위의 표현을 통하여, 화자가 그 상위자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경어, 그리고 '미화어'는 화제의 사물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자신의 말투의 품위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경어, '정중어'는 화제의 사물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청자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경어, '정녕어'는 화자가 오로지 청자에 대한 배려를 차지하는 경어로 분류했다.

宮地裕의 경어분류는 현대의 대표적인 분류설로서 이 宮地裕의 5분류는, 그 이전의 여러 가지 분류 개념의 계승과 비판으로부터 이루어 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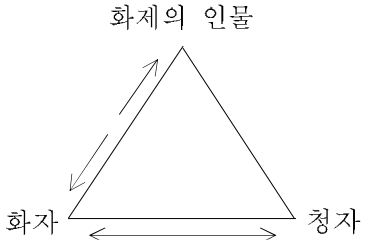
종래 여러 학자들과의 다른 특징은 '겸양어', '미화어', '정중어'를 독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 경어의 특징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모두 경어가 있다. 그러나 그 용법이나 사용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일본어의 경어는 장면이나 상호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 경어'이지만, 한국어의 경어는 상황이나 인칭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어인 '절대 경어'로 나타난다.[9]예를 들어 자신이 자기보다 윗사람인 상대방에게 이야기 할 경우, 일정한 경어로 나타나는 한국어 경어와 달리, 발화 상황에 따라 경어 사용이 달라지는 것이 일본어 경어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경어법과 상대경어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하기도 한다.[10]

8) 国立国語研究所,「敬語教育の基本問題 (下)」, 大蔵省印刷局,1999,p.21
9) 日本語教育学会,「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大脩館書店, 1998,p.158
10) 백동선 外(2002),「일본어학의 세계」, 도서출판 박이정, p.172



<절대경어법>

<상대경어법>

다른 예를 들어보면,「母が作ってくれました。」를 한국어 그대로 해석하면「엄마가 만들어 주었습니다」로 내 가족인「母」에 대해서는 존경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이 일본어를 구사할 때, 절대경어법을 그대로 적용시켜「어머니가 만들어 주셨습니다」에 해당하는「お母さんが作ってくださいました。」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화자보다 연령이 높은 주체라 할지라도 그 주체가 화자의 가족이나 친척, 같은 직장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면 타인에게 존경어로 말하지 않는 것, 즉,「ウチ」와「ソト」개념에서 비롯된 특징이다.

이「ウチ」와「ソト」개념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점이, 한국인 학습자가 제 2 외국어로 일본어를 학습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일 것이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경어형태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한국어의 경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절대 경어이며, 일본어의 경어는 상대경어이다. 다시 말해 한국어의 경어법은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것이고, 일본어의 경어법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어에는 체언에 붙어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께」,「께서」가 있지만, 일본어에는 그런 조사는 없다. 세 번째로 일본어에는「お」,「ご」와 같이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11] 네 번째

11) 한국어에도「貴夫人」,「令夫人」,「玉體」와 같은 한자 접두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순수한 한국어(고유

로 존경어의 경우, 한국어 용언의 어간에「~(으)시」를 접속시키는 표현만 가능하지만, 일본어에서는「～れる、られる」외에도「お(ご)～になる」,「お(ご)～くださる」,「～てくださる」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다섯 번째, 겸양어의 경우, 한국어 용언의 어간에「～(어)드리다」[12]와 같은 보조용언의 표현이 가능하며, 일본어에서는「お(ご)～する」,「お～いただく」,「お(ご)～いたす」,「～ていただく」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일본어와 한국어의 경어체계를 비교하면서, 상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어 경어의 특징에 근거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어 표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2-4. 한 · 일 경어 표현의 차이

한국은 가족중심, 혈연 중심의 사회이므로 일족(一族)의 단결이 중요시 되는데 반해, 일본은 집단주의, 조직중심의 사회이므로 조직의 단결과 일체화, 협동이 중요시 되어 왔다. 그러한 사회적인 영향으로 가족보다는 타인, 가정보다는 직장이 우선시 되었으며, 상하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경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경어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장에서 말한「ウチ」와「ソト」의 개념[13]이다.
이「ウチ」와「ソト」개념은 일본만이 갖는 독특한 개념인 「本音」와「建前」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친한 사람에게「本音」를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기본적으로「本音」는 문화에 관계없이「ウチ」에서 실현되기 쉽다.

그러나「ウチ」와「ソト」를 엄격히 구분해서「ソト」에서는「建前」만을 말한다.

어)의 경어 접두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12) 한국어 용언의 어간에 「옵」,「삽」,「잡」등을 접속시키는 형태 또한 존재한다.

13) 「ウチ」라는 개념은「ソト」의 대립개념으로, 둘러 쌓인 곳, 움푹 패인 곳, 집 안, 가족, 직계존속, 우리, 지식의 공유, 친숙함, 안식, 사적인 것, 경험된 것, 기지의 사실, 통제를 할 수 있는 곳, 신성한 것, 본원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牧野成一著,安増煥訳『空間의語学文化学』 제이앤씨, 2001 p.22

더구나 누가「ウチ」와「ソト」의 구성원인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일본인의 本音는 쉽게 알기가 어렵다.

한국어의 경우, 손윗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어로 표현한다. 이에 반해 일본어의 경우는 비록 손윗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나 직장의 상사라면 겸양어로 표현해야 한다. 다시 말해, 회사나 거래처에 자신의 직장 상사를 소개하거나 전화로 상사의 부재를 전할 경우, 비록 손윗사람인 상사라고 하더라도 겸양어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아버지를 찾는 전화를 자녀가 받았을 때, 한국에서는「아버지께서는 외출하셔서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ちちは外出しております」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사장을 찾는 전화를 사원이 받았을 때, 한국에서는 보통「사장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라고 해야 되겠지만,일본에서는「社長は席をはずしております」라든가「社長はただいま留守でございます」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다.

일본어의 경어는 안과 밖을 구별하여 밖에 대해 안을 낮게 표현하는 일본인의 사고방식이 기반이 되어 있지만, 한국어의 경어는 일본과는 달리 안과 밖을 구분 짓지 않고 자신보다 손윗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등에게는 절대 경어로 사용하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이처럼 경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초급 학습 단계의 습관이 고급과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 수록된 경어표현을 다음 장에서 중점적으로 분류해보고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제3장 일본어 교과서의 경어표현 분석

학교문법에 따라, 경어를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로 분류하여, 품사별 경어형태의 특징을 살펴보고, 교과서에 수록된 경어표현의 예문 제시와 각각의 빈도, 비율 등으로 정리하여 분류하기로 한다.

3-1. 존경의 경어표현

『日本語教育事典』(2000)에서는 尊敬語를 다음과 같이 정의[14]하고 있다.

話題の人行為所有についての表現で、話し手がその人の敬意的配慮を表す敬語。話題の人は、直接の相手であり、第三者であることもある。敬称·尊称とも。

화제의 인물(행위, 소유)에 대한 표현으로, 화자가 그 인물의 경의적 배려를 나타내는 경어. 화제의 인물은 직접적인 상대이며, 제 3자일 때도 있다. 경칭·존칭이라고도 한다.

위와 같은 정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분류를 제시하였다.

名詞：代名詞　「あなた, かた, こちら, そちら, あちら」
　　接頭辞　「お～, 御(ご)～, 御(おん)～, 貴～」
　　接尾辞　「～様, ～さん, ～氏, ～方, ～殿」
動詞：「なさる, いらっしゃるいる(くる, いく, おっしゃる), あがる, 召す, 召し上がる, みえる, くださる」
形式動詞：お～になる,　お～あそばす, お～なさる, お～くださる, ～してくださる
形容動詞：お～(お美しい·おきれいだ)
助動詞：～れる,　られる

위와 같은 분류에 따라서 교과서에 나타나는 존경 표현의 출현범위와 비율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14) 小川芳男 外, 日本語教育学会,　『日本語教育事典』, 大脩館書店, 2000, p.231

(1) 명사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이름을 대신하여 지시하고, 수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존경어 명사는 명사 본연에 경이가 담겨 있다. 경어 명사를 분류함에 있어 일본어 교육사전에 나와 있는 대명사, 접두사, 접미사 에 접두사+명사+접미사 의 형태를 더해서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해 보겠다.

1) 대명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대명사로는 「あなた」,「かた」,「せんせい」,「どなた」가 있다.

① あなた

「あなた」[15]는 근세까지는 상당히 높은 경의를 표현하는 말로 쓰였지만, 근세 후반부터 거의 대등한 상대를 가리키게 되었으며, 현대어에 이르러서는 존경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손위이거나 친하지 않은 상대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부사이와 같이 친근한 사이에서는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1) あなたは野球とテニスとどちらが好きですか。 (교학A-Ⅰp.74)
예 2) あなたのうちにいぬがいますか。 (진명B-Ⅰp.42)
예 3) あなたはけんこうを守るためにどうしたらいいと思いますか。 (천재Ⅱp.37)

② かた

「人」의 의미로서「かた」는, 타칭의 인칭대명사로 본래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로 쓰였

15) 오미선 外 『일본어 문법level up』, 다락원, 2004, p.70

으나, 현대에서는 사람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16]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 4) このかたはおばあさんです。 (교학A-Ⅰp.35)

예 5) お母さんはとてもきれいな方ですね。 (블랙Ⅰp.38)

예 6) このかたがあなたのおとうさんですね。 (천재Ⅰp.34)

③ せんせい

연장자에 대한 對称, 他称의 존경어이다. 「せんせい」는 글자 그 자체가 존경어로서, 한국어로 말하면 「선생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 일본어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어의「선생+님」으로 착각하여 「せんせい+さん/さま」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하지 않게 주의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 7) せんせ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 (천재Ⅰp.20)

예 8) 先生方は何人いらっしゃいますか。 (블랙Ⅱ p.95)

④ どなた

「どなた」는「だれ」의 존경어로 부정칭의 인칭대명사이다. 한국어로 해석하면 '누구, 어느 분' 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 9) さとうさん、この方はどなたですか。 (교학A-Ⅰp.39)

예 10) はい、どなたですか。 (블랙Ⅱp.100)

예 11) しつれいですが、どなたですか。 (대한Ⅱp.144)

16) 辻村敏樹(1991),『敬語の用法』,角川書店, p.338

이상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존경어 대명사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존경 명사의 출현 정도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3> 존경어「대명사」분석

교과서	지학		대한		천재		블랙		진명B		교학A		합계	비율
종류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あなた	2	0	0	5	27	27	1	8	4	9	25	6	114	26.88
かた	0	5	0	0	12	3	9	0	1	0	7	5	42	9.90
せんせい	19	23	29	33	20	25	10	43	14	16	16	11	259	61.08
どなた	0	0	0	1	0	0	0	2	2	0	3	1	9	2.14
합계	21	28	29	39	59	55	20	53	21	25	51	23	424	100%

존경어 대명사「あなた」는 모든 교과서에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5과 이전의 도입을 보이고 있고, 대한Ⅰ과 지학Ⅱ에서는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かた」는 대부분 4과 이전으로 빠른 도입을 보고 있지만, 대한Ⅰ·Ⅱ, 블랙Ⅱ, 지학Ⅰ, 진명BⅡ등 조사 교과서 12권중 5권의 교과서에는 단 한 차례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せんせい」는 모든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블랙Ⅱ교과서에 43회의 출현과 61%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どなた」는 의문문에서만 사용되는 제약으로 인해Ⅰ교과서에서는 교학Ⅰ- 3회, 진명BⅠ- 2회로 존경어 대명사 중에서 총 4회의 출현으로 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Ⅱ교과서에서는 3종의 교과서에서 총 4회 출현으로,Ⅰ교과서에서와 같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2권의 교과서 중 5권에 나타나지만 초출 단원은 1과에서 10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입을 볼 수 있었다.

2) 접두사

일본어 명사는 접두사 부착에 의한 존경어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며, 한국어에는 이런 존경 표현이 없으므로 학습상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お·ご」의 첨가형식이다. 교과서에 나타난 존경의 접두사는「お＋명사」,「ご＋명사」와 바로 뒤에서 다루게 될「お＋형용사」,「お·ご+형용동사」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나타난 존경어 접두사의 예문과 빈도수를 「お＋명사」의 형태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お+명사」

존경의 접두사「お(ご)」가 붙은「お＋명사(N)」,「ご＋명사(N)」는 한국어로는 (당신의) 명사(N)'는 의미를 갖는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당신의)일 → お誕生日
(당신의)생일 → お仕事

한편,「お＋명사」의 형태는 미화어의 형태와도 같기 때문에 학습자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17]

예12) おにいさんはおいくつですか。 (교학A-Ⅰp.36)
예13) そちらにはお仕事を書いてください。 (블랙Ⅱp.148)

②「ご+명사」

「ご＋명사」형태의 존경어로는 주로漢語名詞에 사용되는 표현이며, 존경어 접두사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17) 예) そうね。お面やハンボクがみたいんだけど。 (대한Ⅱ p.28)
와 같이 お面, お茶, お風呂, お湯, おべんとう 등의 미화어와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14) ご注文をどうぞ。 (진명B-Ⅰp.94)

예15) ご用件のある方はメッセージをどうぞ。 (지학Ⅱp.8)

이상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존경어 접두사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존경접두사의 출현 정도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4> 존경어 「접두사」 분석

교과서	지학		대한		천재		블랙		진명B		교학A		합계	비율
종류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お+명사	20	22	17	26	26	20	16	26	7	24	39	23	266	85.53
ご+명사	1	6	2	6	3	5	5	3	2	10	0	2	45	14.47
합계	21	28	19	31	29	25	21	29	9	32	39	25	311	100(%)

전체 교과서에서 존경어로 사용된「お+명사」는 전체 접두사 형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お誕生日」,「お宅」,「おいくつ」등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다.「お+명사」의 형식 중 漢語名詞이면서「お」가 붙는 예외적인 것으로 교과서에 나온 것은「블랙Ⅱ」의「お電話」등이 있고, 교과서에 출현하지 않은 예외적인 것은「お時間」,「お留守」등이 있었다. 이런 접두사「お」는 대체적으로 3과 이전의 빠른 도입을 보이고 있지만「천재Ⅱ」에는 6과에 초출하여 비교적 늦은 도입을 보여주고 있다.

「ご+명사」형태는 전체 교과서 접두사 형식 중 총54회의 사용빈도로 교과서 Ⅰ은 22회, 교과서 Ⅱ는 32회로 비슷한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注文」,「卒業」등 한국인에게도 평이한 漢語名詞에 선행하는 것들만 제시되고 있다.

전체 용례 중「ご家族」14회,「ご両親」11회의 순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ご用件」,「ご卒業」,「ご注文」, 등 17종류가 있었다.

교과서 별로 1과에서 11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입현황을 보이고 있다.

3) 접미사

사람을 정중하게 부를 때 이름 다음에 어떠한 접미사를 붙이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존경어 접미사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품위 있게 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존경 표현의 접미사로서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은「～さん」,「～さま」,「～方がた」 등이 있다.

①「～さん」

「～さん」은 사람에 한정되어 붙이는 것은 아니고 ,상대의 性, 이름, 친족, 호칭, 직업, 지위, 상점의 상호, 회사명과 같은 것에 붙여 폭넓게 상대방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기도 한다.

교과서에 나타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16) ミンスさんはサッカが好きです。 (블랙Ⅰp.21)

예17) ナミさん、ちずでさがしてみましょう。 (천재Ⅰp.121)

예18) やまもとさんのへやはひろいですか。 (진명B-Ⅰp.70)

②「～さま」

「～さま」는「～さん」보다 경위의 정도가 높은 접미어[18]로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신분, 인칭대명사 등에 접속한다. 사람을 부를 때「～さま」를 붙이는 것은 지극히 정중한 경우로, 보통은「～さん」을 붙인다. 교과서에 나타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19) 3名さま。わかりました。 (천재Ⅱp.141)

예20) 先生のおくさまがひどいかぜをひいたそうですね。 (지학Ⅱp.152)

예21) ご家族のみなさまによろしく。 (천재Ⅰp.163)

18) 奥山益郎(2000),『状況分類別敬語用法辞典』p.171

③「～方(がた)」

「～方がた」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에 붙는 접미사로, 복수인 사람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다. 교과서에 나타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22) 先生方は何人いらっしゃいますか。 (블랙Ⅱp.95)

이상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존경어 접미사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존경어 접미사의 출현 정도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5> 존경어「접미사」분석

교과서	지학		대한		천재		블랙		진명B		교학A		합계	비율
종류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さん	166	189	74	140	102	137	164	198	85	117	141	195	1708	98.21
さま	1	8	2	1	1	0	0	5	2	0	3	2	25	1.44
方	0	2	0	0	0	0	0	4	0	0	0	0	6	0.35
합계	167	199	76	141	103	137	164	207	87	117	144	197	1739	100(%)

「～さん」은 전체 접미사 중 교과서 Ⅰ과, 교과서 Ⅱ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2인칭 대명사「あなた」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서「あなた」를 이용한 호칭보다 이름이나 성에「～さん」을 붙여 경의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さま」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블랙Ⅰ」,「진명BⅡ」,「천재Ⅱ」에서는 단 한 번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1과에 도입되는 교과서가 있는 반면, 12과에 늦은 도입을 보이는 교과서도 있다.

접미사로서의「～方」는 교과서 Ⅰ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교과서 Ⅱ에서도 「블랙Ⅱ」4회와「지학Ⅱ」2회의 총 6회로 극히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さま」,「～方」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출현하지 않아도 좋으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4)「접두사+명사+접미사」

「접두사+명사+접미사」의 형태는 한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존경어 형태이다. 일반적으로「お父さん」이나「お医者さん」처럼, 친족 명, 직업명 등에 붙어 화제의 사람에게 존경을 나타내며, 한편 친족명사를 중심으로 하는「お+명사+さん」등은 자신의 부모나 형제를 직접 부를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모나 다른 사람의 자녀를 가르칠 때 사용 된다는 용법상 제한을 갖는다.「お+명사+さん」,「お+명사+さま」의 형태로 분류된다.

①「お+명사+さん」
교과서에 나타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23) お客さん、これはいかがですか。 (교학A-Ⅱp.18)
예24) 早くお医者さんに見せたほうがいいですよ。 (지학Ⅰp.175)
예25) となりのおばあさんがげんかんをはいてくれました。 (대한Ⅱp.101)

②「お+명사+さま」
「お+명사+さま」보다 경의도가 높은 표현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26) たのきゅうは、おひめさまのいしょうをきて彼女に見せてやった。 (천재Ⅱ p.173)
예27) みどりがいろいろとユンヒさんのお母さまにまでごめいわくをおかけしているそうで。
(교학A-Ⅱp.13)

이상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존경어「접두사+명사+접미사」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존경어「접두사+명사+접미사」의 출현정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 존경어「접두사+명사+접미사」분석

교과서	지학		대한		천재		블랙		진명B		교학A		합계	비율
종류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お~さん	10	23	11	26	42	51	21	20	25	44	43	48	364	89.43
お~さま	0	0	6	6	0	5	3	1	0	15	2	5	43	10.57
합계	10	23	17	32	42	56	24	21	25	59	45	53	407	100(%)

「お+명사+さん」이「접두사+명사+접미사」형식 중에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대체적으로 5과 이전의 빠른 도입 현황을 보이고 있다.

「お+명사+さま」는「お+명사+さん」보다는 현저히 낮은 비율이지만, 경의도 보다 높은 표현으로 교과서 Ⅰ에서는「대한Ⅰ」이 가장 높았고「진명BⅠ」,「천재Ⅰ」에서는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지학Ⅰ/Ⅱ」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에 교과서Ⅱ에서는 앞서 말한「지학Ⅰ/Ⅱ」에서만 언급되지 않았고,「진명BⅡ」에서 15회로 가장 높게「블랙Ⅰ」에서 1회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언급된 교과서에서는 1과 혹은 8,10과로 처음과 끝부분에 도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특수한 예인「お+명사+さま」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기초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볼 수 있다.

(2) 동사

1) 어휘적 경어동사

동사란 사물의 동작, 작용, 상태, 존재 등을 시간적으로 지속하고 또 시간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 을 표현하는 품사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존경어 동사로는「いらっしゃる」,「おっしゃる」,「くださる」,「なさる」,「召し上がる」등이 있다. 이 6가지 존경어 동사가 교과서에서 어떤 분포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なさる」

「する」의 존경어로, 한국어의 '하시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28) コーヒーとジュースがありますが、どちらになさいますか。 (천재Ⅱ p.68)

예29) インターネットでよく買い物をなさるんですか。 (교학A-Ⅱp.27)

<표7>「なさる」분석

교과서	지학		대한		천재		블랙		진명B		교학A		합계
종류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なさる	0	1	0	0	0	4	0	2	0	0	0	2	9
합계	0	1	0	0	0	4	0	2	0	0	0	2	9

「なさる」는 총 9회가 제시되었으며, 천재Ⅱ와 블랙Ⅱ,교학AⅡ에서만 분포, 다른 교과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なさる」는 한국어의 '하시다' 에 해당하는 말로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인 만큼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전체교과서에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なさる」는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お休みなさい」,「おか

えりなさい」와 같이 관용적으로 인사말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으므로 지도 할 때 주의를 더욱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②「くださる」

「くださる」는「くれる」의 존경어이고, 한국어「주시다」의 의미이다. 동사의 연용형에 접속해서「てくださる」라는 표현도 있다. 최근에는 겸양어가 발달해「いただく」를 자주 사용하고 존경표현인 「くださる」를 사용하는 경우는 적어지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30) では、この白いのをください。 (천재Ⅰ p.79)
예31) ちょっと窓を開けてください。 (지학Ⅰ p.129)

<표8>「くださる」분석

교과서	지학		대한		천재		블랙		진명B		교학A		합계
종류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くださる	9	8	7	2	1	1	3	2	4	1	2	1	41
～てくださる	15	21	30	33	20	41	25	16	20	16	24	23	284
합계	24	29	37	35	21	42	28	18	24	17	26	24	325

「くださる」는 행위자가 주어이며 친밀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 받는 쪽이 주는 쪽에 대해 존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상대인 주는 쪽이 상위일 때 사용한다.
교과서 Ⅰ,Ⅱ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くださる」의 형태보다「～てくださる」의 명령형 형태의 분포가 높다.
지학Ⅰ,Ⅱ 에서는「くださる」가 총 17회로 제시되어 다른 교과서에 비해 분포가 높았고,「くださる」는 전체 교과서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존경어 동사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천재Ⅰ,Ⅱ와 교학AⅠ,Ⅱ는 가장 낮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과서에 분포되어 있는「くださる」의 형태는「～てくださる」의 형태에 편중되어 있어 존경어를 학습시킬 때 주의시켜야 할 것이다.

③「いらっしゃる」

「ある」,「いる」,「行く」,「くる」의미의 존경어로,「いらせらる」에서 전해진 용어이다. 의미는 한국어의 '계시다'에 해당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32) あっ、ところで、先生方は何人いらっしゃいますか。 (블랙Ⅱ p.95)

예33) 昨日日本から田中さんのおばあさんがいらっしゃった。 (지학Ⅱ p.79)

예34) ぜひ東京に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 (블랙Ⅰ p.136)

<표9>「いらっしゃる」분석

교과서	지학		대한		천재		블랙		진명B		교학A		합계
종류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いらっしゃる	2	7	1	4	2	1	2	10	3	3	2	1	38
합계	2	7	1	4	2	1	2	10	3	3	2	1	38

「いらっしゃる」는 대부분의 교과서에「いらっしゃい」형태로 나타나 있었고, 지학Ⅱ, 블랙Ⅱ는 각각 7회,10회로 다른 교과서에 비해 분포도가 높았다.

특히, 블랙 Ⅱ의 교과서에는「いらっしゃる」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었다.

「いらっしゃる」는 상위자의 동작, 상태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현대사회에서는「いらっしゃい」라는 인사말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경어 표현보다 그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전체 교과서에 폭넓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おっしゃる」

「言う」의 의미의 존경어로 室町시대의「おおす」에서「おおせる」로 변해, 江戸시대에「おっしゃる」로 된 언어이다.[19)]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35) 仕事が終わったら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 (진명B-Ⅱp.89)

예36) 先生が休みた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블랙Ⅱp.98)

⑤「めしあがる」

「めしあがる」는「飲む」,「食べる」의 존경어로서 한국어로는 '드시다' '잡수시다' 에 해당된다.「めしあがる」는 기본 어휘에 속하지 않아서인지, 다양한 예문은 찾을 수 없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37) どうぞ、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 (진명B-Ⅱp.22)

예38) じゃあ、おかしをもっとめしあがってください。 (교학A-Ⅱp.67)

<표10> 존경어「동사의 어휘적 용법」 분석

교과서	지학		대한		천재		블랙		진명B		교학A		합계	비율
종류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なさる	0	1	0	0	0	6	0	4	0	0	0	2	13	5.67
くださる	25	9	8	2	4	2	6	1	8	1	5	1	72	31.44
いらっしゃる	11	10	4	6	3	19	16	27	21	4	8	3	132	57.64
おっしゃる	0	0	0	0	0	7	0	2	0	1	0	0	10	4.36
めしあがる	0	0	0	0	0	0	0	0	0	1	0	1	2	0.89
합계	36	20	12	8	7	34	22	34	29	7	13	7	229	100(%)

19) 奥山益郎(1999), 『状況分類別敬語用法辞典』 p.257

전체 존경어 동사 중「いらっしゃる」,「くださる」가 전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なさる」가 그 뒤를 이었다.
「おっしゃる」는 기본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의 7차 교육 과정의 분석대상이 초급 학습자 이지만 각 존경어 동사에 대해 이해 어휘 수준으로 전체 교과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2) 문법적 경어동사

존경어 동사의 문법적 용법은 동사의 連用形과 명사에「お」,「ご」를 붙이거나, 보조동사와 결합시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형태로,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적 경어동사의 종류는「お(ご)～になる」,「お(ご)～くださる」,「～てくださる」,「お～です」등이 있다.

①「お(ご)～になる」

「お(ご)～になる」는 상대의 동작을 직접 경어화 하는 형식으로, 존경의 정도가 높은 표현이며 거의 모든 동사에 적용할 수 있지만, 동사의 연용형이 1음절인 (見る、死ぬ、寝る)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お(ご)～になる」는 한국어「～시～」에 해당하는 말로, 초급 학습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어 표현이므로 반복학습을 통하여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39) いつ日本におかえりになりますか。 (대한Ⅰ p.177)
예40) 前田さん、タバコはおすいになりますか。 (블랙Ⅱ p.81)

「お～になる」의 형태의 예문은 많았지만,「ご～になる」의「～」에 경어가 들어가는 예는「ごらんになる」뿐이었다. 「ごらんになる」는 「見る」의 존경어로 교과서에 나타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41) 見る(보통어) - ご覧になる (블랙Ⅱp.81)
예42) 今、ごらんになったのはテクオンドです。 (대한Ⅱ p.168)

② 「お(ご)～くださる」

「お(ご)～くださる」는 상대 또한 제3자의 화자에 대한 은혜나, 화자의 희망을 정중하게 표현한 것으로 화제의 인물의 동작이 화자 쪽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사용된다. 경의를 담은 권유나,「お～なさい」를 대신하는 정중한 명령으로 사용된다.「お(ご)～くださいませ」의 경우는 경의를 좀 더 강조하게 된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43) しょうしょうお待ちください。 (대한Ⅱp.68)
예44) ご家族の方々にもよろしくお伝えください。 (지학Ⅱp.117)

「お(ご)～くださる」는「お(ご)～になる」와 더불어 문법적 경어형식 중 하나이므로, 전 교과서에 고르게 수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てください」

「～てください」는 본동사인「～下さる」와 달리,「～て」형에 접속하여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보조동사의 용법으로,「～てくれる」의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며, 한국어로는「～해주다」,「～해 주시다」와 유사하다.「～てください」는「お～くださる」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連用形에 접속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45) 先生が日本語を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 (블랙Ⅱp.161)
예46) おばあさんが作ってくださった日本料理はとてもおいしかった。(교학A-Ⅰp.162)

④「お+명사형+です」

「お+명사형+です」는「お(ご)～になる」와 서로 바꿔 말할 수 있는 형식으로「お(ご)～になる」는 동작의 결과로서 어떤 상태가 출현 하는 데에 중심을 둔 표현이고,「お～です」는 출현한 상태를 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이다. 즉 동사적 표현과 형용사적 표현의 상호교환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47) ソラさん、明日おかえりですか。 (대한Ⅱ p.190)

예48) どんなものをおさがしですか。 (지학Ⅱ p.67)

⑤「V-(られる)」

조동사 「れる·られる」는「お(ご)～になる」보다 경의도는 낮지만, 형식이 간단하고 규칙적이어서 최근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ら)れる」는「お(ご)～になる」나 존경동사보다 경의의 표현도가 낮아 젊은 회사원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경어 표현으로서, 동년배의 상사나 그다지 지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 가볍게 쓰이는 표현이므로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손윗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편이 좋다.

한편, 수동과 가능, 자립의 형태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일본어를 학습하는 데에 있어 교사가 지도 시 에는 수동형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49) 先生がこちらへ来られる。 (지학Ⅱ p.168)

이상, 교과서에 나타난 동사의 문법적 경어 용법을 살펴보았다. 동사의 문법적 용법 전

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표와 같다.

<표11> 존경어「동사의 문법적 용법」분석

교과서	지학		대한		천재		블랙		진명B		교학A		합계	비율
종류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お(ご)~になる	0	2	11	11	14	0	2	18	0	9	5	8	80	10.73
お(ご)~ください	0	17	4	1	0	4	0	19	1	0	2	6	54	7.24
~てください	35	42	55	82	33	63	59	48	36	31	73	47	604	81.07
お~です	0	1	0	1	0	0	0	0	0	2	0	1	5	0.67
れる·られる	0	1	0	0	0	0	0	0	0	1	0	0	2	0.29
합계	35	63	70	95	47	67	61	85	37	43	80	62	745	100(%)

「~てください」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본 어휘로 선정되어 있으면서 전체 존경어 표현 가운데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용도가 높은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てください」는 존경어로서의 경의도는 낮아져 현재는 완곡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てください」는「お(ご)~ください」보다는 약간 경의도가 낮은 정중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반면,「お+명사형+です」는 교과서 Ⅰ,Ⅱ에서 총5회의 극히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ごらんになる」는 전체 교과서 중「대한Ⅱ」에 2회,「블랙Ⅱ」1회로 총3회 출현하여, 교과서 Ⅱ에 나타난 존경어 동사 중 극히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대한Ⅱ」에 2회 제시된 것 중 1회는 본문에 나오는 어구의 설명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예문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존경의 조동사「れる·られる」는「진명BⅡ」에서 제시된 예문의 경우 가능으로 보아도 무방한 표현이지만, P.166의 어휘 색인 부분에서「られる」를「~되다,~하시다」로 수록하고 있어 경어 표현으로 취급하였다.「V-(られる)」가 현대에 와서 점차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존경어의 한 형식이므로, 각 교과서마다 고르게 수록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 중에서「お(ご)~ください」나「お+명사형+です」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출현

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3-2. 겸양의 경어표현

겸양어는 話題의 사람, 두 사람 간의 행위에 대해, 화자가 상위자에 대해 경의를 나타내는 경어이다.

종래 겸양어라고 불리어져 왔던 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기본적으로「お+동사의 연용형 + する」의 형을 취하는 것으로, 또 하나는「いたす」,「申す」,「まいる」,「おる」등 몇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1) 동사

겸양의 동사로서는「いたす」,「申す」,「まいる」,「いただく」,「うかがう」,「おる」등이 있다.

① いたす

「する」의 의미의 겸양어로 室町시대 이후 사용되었다. 江戸시대부터 점차로 정중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江戸시대부터「いたします」라는 표현과「おいたす」라는 화법도 생겨 점차 정중화되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50) まもなく京都、京都に到着いたします。 (진명B-Ⅱp.39)
예51) はい、わかりました。それではしつれいいたします。 (블랙Ⅱp.95)
예52) 今年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천재Ⅰp.177)

「いたす」는 전체 교과서 중 진명BⅡ, 블랙Ⅱ, 천재Ⅰ,교학AⅡ에서만 각 1회씩 제시되었다.

「いたす」는 겸양어의 경우와 정중어의 경우의 구별이 애매하다. 자신 측의 행위에 관한「いたす」는 겸양어이고, 일반 사실을 표현한「いたす」는 정중어 이다. 그러므로「いたす」는 학습지도시 한국어에는 해당되는 적절한 어휘가 없기 때문에 겸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야 할 것이다.

② 申す

「言う」의 의미의 겸양어로 上代부터 사용되고 있다. 정중어로서는 平安시대부터 사용하고 있다. 현재「申す」를 사용하는 것은 드물어 졌다.

겨우「私は奥山と申します」정도이다. 그에 비해서「申し上げる」는 상업경어의 범람으로 도처에서 들을 수 있다.

「申し上げる」는 平安시대부터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화 된 것은 중세이후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53) 山本ともうします。 (천재Ⅰp.36)

예54) もしもし、こちら韓国ハンガン高校のキムスビンともうします。 (블랙Ⅱp.94)

「申す」의 경우는 <표13> 겸양어 동사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으며, 겸양어 동사 중 50.9%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진명BⅠ교과서와 교학AⅡ교과서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교과서에 제시된「申す」의 형태는 대부분「～ともうします」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申す」는 자신의 소개를 할 때 자주 사용하므로, 전체 교과서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③ まいる

「行く」,「来る」의 의미의 겸양어, 정중어이다.「行く」와「来る」가 같은 언어인 것은 일본어 특징일지 모른다. 또「ている」는 동사 연용형에「まいる」를 붙여서「来る」의 의미의 겸양표현, 정중표현을 만든다.
또, 상대의 힘에 지거나, 事態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를「まいる」라고 말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55) それじゃ、行ってまいります。 (천재Ⅱp.28)

「まいる」는 겸양과 정중의 두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교과서에서 천재Ⅱ의 교과서에서 단 1회만 제시되었지만, 초급 학습자들은「行ってまいります」의 형태를 많이 사용하므로, 전체 교과서에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④ いただく

「もらう」의 의미의 겸양어로,「頭上に載せる」라는 동작에서 전해졌다. 江戸시대부터는 이것에「飲み食いする」의 의미가 더해져 현대에 이르고 있다.
「飲み食いする」의 의미의「いただく」에는 정중어도 있다. 食前「いただきます」라는 것은 인사어가 되었다. 즉,「お~いただきます」,「~ていただく」의 용법은「頂載する」와 같은 경어도 있다.
조사에서는 食前「いただきます」는 제외시켰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56) 一度、先生の料理をいただいてみたいです。 (블랙Ⅱp.79)
예57) 先生は今ほかの人と相談していますので、5分後にもう一度お電話いただけますか。
(지학Ⅱp.17)

전체 교과서에서 블랙Ⅱ와 지학Ⅱ의 교과서에서 각각1회씩 제시되었으며, 겸양어 동사 중 3.8%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예문을 제외하고 전체 교과서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았지만, 겸양어 동사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해하기 쉬운 어휘 수준으로 바꿔 전체 교과서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うかがう

「聞く」,「質問する」,「訪れる」의 의미의 겸양어이다.「聞く」의 의미는 室町시대부터,「質問する」,「訪れる」는 江戸시대에 파생한 것이다.[20]「訪れる」의미로는 그밖에「上がる」,「まいる」가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58) ちょっとうかがいたいんですが。 (대한Ⅱp.41)

예59) 先生のしゅみは料理だとうかがいましだが。 (블랙Ⅱp.79)

「うかがう」는 총12회가 제시되었으며, 겸양어 동사 중22.6%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한Ⅱ, 블랙Ⅱ, 교학ＡⅠ에서만 제시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블랙Ⅱ에서는 7회가 제시되어 다른 교과서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うかがう」는 한국어의「찾아뵙다」,「여쭙다」에 해당되는 말로 한국어에도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으므로 초급 단계의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초급 학습자에게 어려운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⑥ おる

20) 奥山益郎(1999), 『状況分類別敬語用法辞典』 p.252

「いる」의 겸양어로「いる」와 같은 동사이지만, 현대에서는 가벼운 정중표현으로 하는 것이 있다.

예60) あのう、父は今、ちょっとるすにしております。 (대한Ⅱp.142)
예61) あやは今出かけております。 (지학Ⅱp.11)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ておる」형이 많았다.「～ている」의 겸양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보조동사로 분류하여 분석해야 하나, 겸양어 동사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おる」는 < 표 >과 같이 겸양어 동사 중에서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학Ⅱ, 대한Ⅱ, 블랙Ⅱ, 진명BⅠ, 교학AⅠ을 제외한 다른 교과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おる」는 전화를 거는 장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전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12> 겸양어 동사의 분포

교과서	지학		대한		천재		블랙		진명B		교학A		합계
종류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いたす	0	0	0	0	0	0	0	1	0	1	0	0	2
申す	0	3	2	1	2	0	0	3	2	4	5	3	25
参る	0	0	0	1	0	0	0	0	0	0	0	0	1
いただく	0	1	0	0	0	0	0	1	0	0	0	0	2
うかがう	0	0	0	2	0	0	0	7	0	0	1	0	8
おる	0	1	0	1	0	0	0	1	1	2	0	2	8
소계	0	5	2	5	0	0	0	13	3	7	6	0	41
합계	5		2		2		13		10		11		87

겸양의 동사로「いたす」,「いただく」는 각 2회,「まいる」는 1회로 분포도가 낮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申す」는 진명BⅡ에서 4회, 교학AⅠ에서 5회로 다른 교과서에 비해 분포도가 높았다.
교과서에 제시된「申す」의 형태로는「～ともうします」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申

す」는 자신의 소개를 할 때 자주 사용하므로, 전체 교과서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2) 보조동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보조동사의 종류에는「お(ご)~する」,「お(ご)~いたす」,「ていただく」등이 있다.

① お(ご)~する

「お」로 동사의 연용형에 붙어서, 겸양표현을 한다. 현대 경어에서는 다소 혼용의 느낌이 있다.
겸양표현임에도 불구하고,「お」가 있기 때문에 존경표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62) 知り合いの日本人の高校生におねがいするよていです。 (대한Ⅱp.82)
예63) お母さん、かばん、お持ちしましょうか。 (진명B-Ⅱp.40)

전체교과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보조동사 중 94.7%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 형식은 화자 쪽의 동작에서만 사용한다. 대표적인 겸양표현이나 학습자들의 오용의 사례가 많다고 한다.
「お(ご)~する」의 형태는 교과서에서는 「おねがいします」의 형태가 자주 제시되어 있고, 한국어의 의미로는「~해 드리다」에 해당된다.

② お(ご)~いたす

「する」의 의미의 보조동사로, 겸양표현을 만든다.「お～する」보다도 겸양도가 높고, 현재에는 接客용어 등의 정중어로 사용되고 있다. 漢語의 경우에는「ご～いたす」가 되지만, 그중에는「お～いたす」의 경우도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64) 今日は「河回ソウル」という村をご紹介いたします。 (교학A-Ⅱp.135)

전체교과서의 0.6%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교학ⅡA외에 다른 교과서에는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お(ご)～いたす」뒤에 대부분「ます」를 붙이는데 예를 들면「いたします」가 된다.

③ ～ていただく

「～てもらう」의 의미의 보조동사로 상대의 동작을 감사를 받는 기분을 나타내는 겸양표현이다.

「いただく」에서 明治시대에 발전한 새로운 용법으로 현재는 널리 사용하고 있다.[21]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65) 日本料理をおしえていただけますか。 (진명B-Ⅱp.100)

예66) 貸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 (대한Ⅱp.154)

「～ていただく」는 전체 8회로 4.7%의 비율로 나타났다. 대한Ⅱ에서 6회로 가장 많은 횟수를 보였다.

---

21) 奥山益郎(1999), 『状況分類別敬語用法辞典』p.248

대한, 진명B를 제외한 다른 4종의 교과서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뢰, 요청을 할 때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교과서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표13> 겸양어 보조동사의 분포

교과서	지학		대한		천재		블랙		진명B		교학A		합계
종류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お(ご)~する	3	16	15	12	3	1	16	20	6	12	4	9	117
お(ご)~いたす	0	0	0	0	0	0	0	0	0	0	0	1	1
ていただく	0	0	0	6	0	0	0	0	0	1	0	0	1
소계	3	16	15	12	3	1	16	20	6	13	4	10	117
합계	19		27		4		36		19		14		118

「お(ご)~する」는 전체 겸양어 특수 동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겸양어 특수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접두사(「 お · ご 」)

화자 또는 화자 쪽 인물의 행위나 소유물 등이 청자나 손윗사람, 그리고 경의를 나타내야 할 사람에게 관련이 있을 때 쓰인다. 현대에는 丁寧語로서의「お」가 매우 많아지고 외래어의 동사에도 붙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お礼」,「ご案内」,「お電話」등이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67) ちょっと、ナレさんにお願いがありますが。 (지학Ⅰp.105)

예68) お名前とお電話番号をお願いできますか。 (블랙Ⅱp.141)

<표14> 겸양어 접두사「お・ご」의 분포

교과서	지학		대한		천재		블랙		진명B		교학A		합계
종류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お・ご	1	1	0	0	2	0	0	2	1	1	0	1	9
합계	1	1	0	0	2	0	0	2	1	1	0	1	9

겸양의 접두사「お・ご」는 전체 9회 밖에 제시되지 않았다. 겸양의 접두사「お・ご」는 학습자들이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 만큼 전체 교과서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3. 정중의 경어표현

丁寧語・丁重語는 화자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丁寧語가 화자에 대한 정중함을 표현한다고 하면, 丁重語는 丁寧語보다도 더욱더 화자에게 정중하게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丁寧語는「です・ます」로 이루어져, 다음과 같이「명사/형용사+です」,「동사 연용형+ます」라는 형으로 주로 文末에 사용되고, 丁寧語라고 말하는 문체를 구성한다.

丁寧体의 문에 있어서도 종속절에는 보통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경우, 역무원, 점원, 얼굴을 아는 정도의 가까운 사람 등에게 말할 때에는 丁寧体가 사용된다. 丁寧語와 丁重語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정중어」로 통일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1) 동사

① ござる

「ある」,「いる」의 존경어이다. 그러나 중세 말기 이후로 존경어보다도 丁寧語의 용법이 중심이 되고「ござある」가 변한 말로서, 축약형「ござる」가 일반화 되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처럼 인사말로 관용화 된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본 조사에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처럼 인사말에 사용된 것은 제외하고 조사했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69) お茶、コーヒー、ジュースがございます。 (진명B-Ⅱp.39)

전체 교과서에서 진명BⅡ에서만「ござる」가 제시되었다. 보조동사「でござる」의 형식은 보조동사에서 다시 기술하고자 한다.

(2) 조동사

① です · ます

「です」는 室町시대 이후 사용되고 있다. 狂言에는「~にです」,「です」가 나타나 있고 丁寧語이다.
「でさうらぶ」의 생략한 「でさう」가 변화한 것이다.
「でござります」→「でござんです」→「であんす」→「でえす」→「です」의 순서로 변화되었다.
丁寧体로서 그 활용어미「だ」대신에 조동사「です」를 사용한다.「です」의 부정에는「でありません」을 사용한다. 가정형, 명령형의 활용형은 사용할 수 없다.
「ます」는「まいらする」에서「まらする」→「まっする」→「ますする」→「ます」로 변화한 존경어, 丁寧語 조동사이고 江戸시대 이후 사용되었다.

현재에는 丁寧語로서 사용한다. 명령형은「ませ」,「まし」라고 한다.
경어 동사에 붙어서 존경표현에 사용되지만 현대어에서는「いらっしゃる」,「おっしゃる」,「くださる」,「なさる」의 4개 동사에 붙는 경우로 한정된다. 丁寧語「ます」는 근세 초기에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です」는 단정의 조동사 'だ'의 정중어로 동사와 연체어 및 연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말에 접속되는데 교과서에 출현하는 대부분의 문장이「です」형인 관계로 조사 및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동사의 연용형에 접속하는 정중어 조동사「ます」도 같은 이유로 이번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② でござる

「である」의 의미의 정중어로 江戸시대 이후 사용되었다. 현재는 상업경어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70) はい、こちらはATBでございます。 (대한Ⅱp.41)
예71) また、もうひとつこの河回ソウル有名なのがこの河回タルでございます。
(교학A-Ⅱp.135)

위의 제시된 예문 외에 대한 Ⅱ의 82페이지, 84페이지에서 각각1회씩 더 제시되었으며, 교학AⅡ에서도 1회 제시 되었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전혀 제시 되어 있지 않았다.
「でござる」는「です」보다 정중한 표현이고, 교과서에 제시된 장면 즉, 회사, 관광 안내 등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전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 접두사(「お・ご」)

경어의 일종으로서 정중어 가운데서「お菓子」,「お米」등 話題는 사물, 또는 그것을 미화한 말투로 품위 있는 것을 美化語라고 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72) あの、今度のお花見のことなんですが、4月10日金曜日，ヨイド公園に あつまってください。
(천재Ⅱp.91)

<표15> 정중어 접두사「お・ご」의 분포

교과서	지학		대한		천재		블랙		진명B		교학A		합계
종류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お・ご	3	12	2	14	11	14	9	18	4	6	3	24	120
합계	15		16		25		27		10		27		120

「お・ご」의 조사에는 미화어도 포함되어 있다.

접두사「お・ご」는 존경어와 겸양어에도 있기 때문에 정중어와의 구별방법 등을 학습 시킬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일본에서는 미화어의 남용이 언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도 언급하면 좋을 것이다.

3-4. 교과서별 경어표현의 제시 실태

교과서 별 경어표현의 제시실태를 비율로 나타낼 때 정중어의 조동사인「です」,「ます」는 교과서 전체에 고르게 나타난 표현이므로 정중어 조동사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조사함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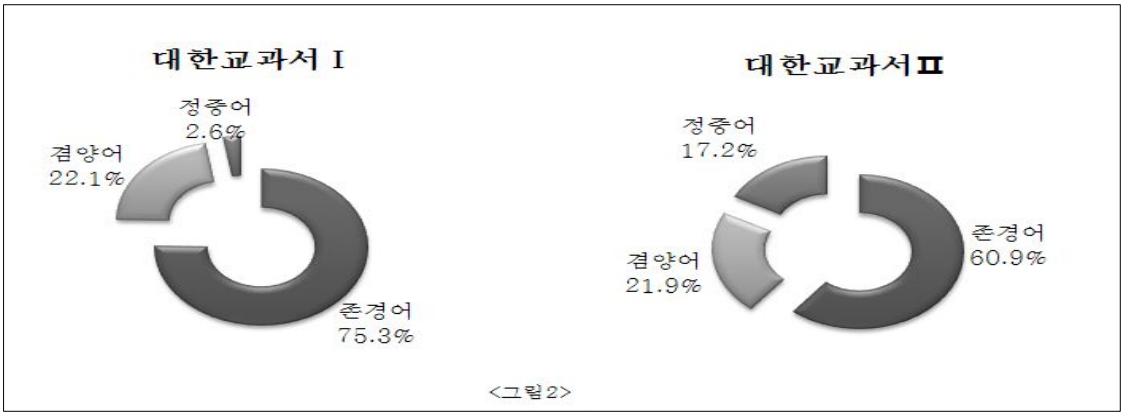
1) 지학사Ⅰ, Ⅱ

<그림1>

지학사Ⅰ,Ⅱ에서는「존경어」,「겸양어」,「정중어」의 순으로 구성 비율을 보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존경어」는 지학사 Ⅰ교과서가 Ⅱ보다 20%가량이 더 높았다. 또「겸양어」는 교과서Ⅰ보다Ⅱ에서 24.5%로 15%이상 늘어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중어」역시 교과서 Ⅱ에서 13.3%로 교과서 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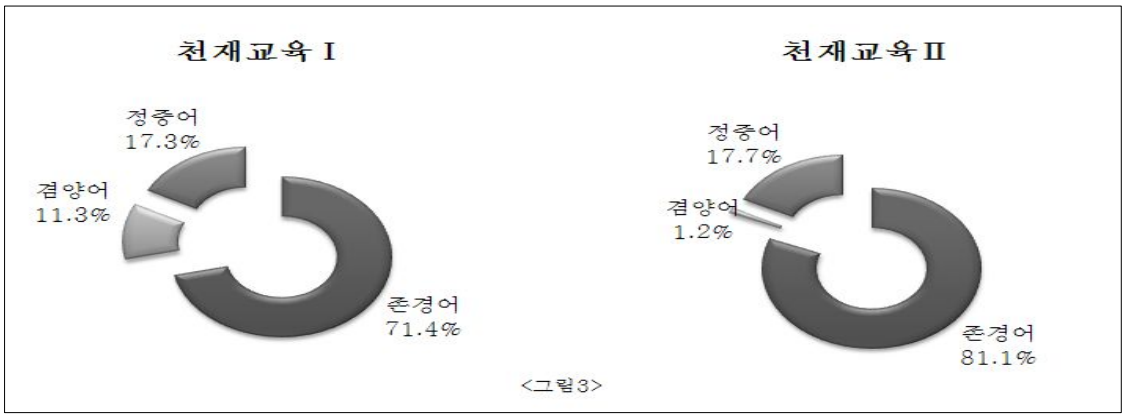
2) 대한 교과서 Ⅰ, Ⅱ



<그림2>

대한 교과서 Ⅰ, Ⅱ에서는「존경어」,「겸양어」,「정중어」의 순으로 구성 비율을 보였다.「겸양어」는 교과서 Ⅰ, Ⅱ에서 22.1%, 21.9%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정중어」는 교과서 Ⅱ에서「です、ます」를 제외했음에도 불구, 비율이 17.2%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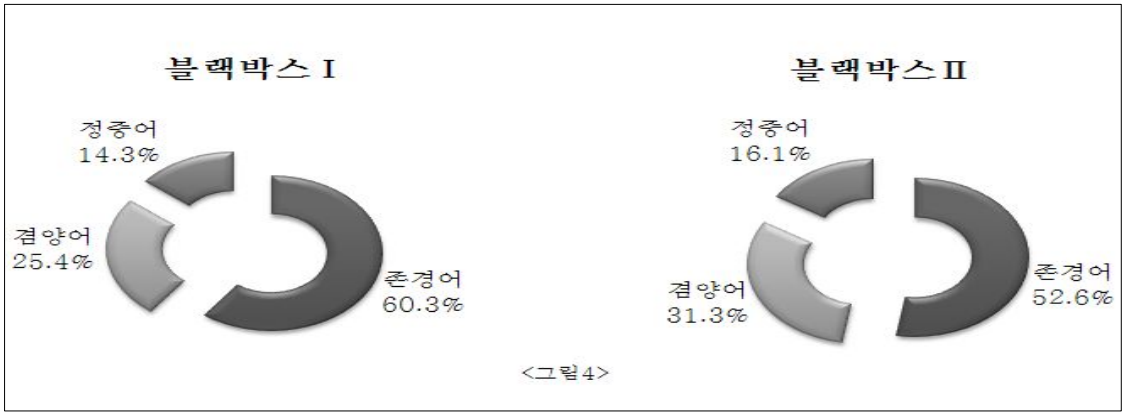
3) 천재교육 Ⅰ, Ⅱ



<그림3>

천재교육Ⅰ,Ⅱ에서는「존경어」,「겸양어」,「정중어」의 순으로 타 교과서와는 달리 다른 구성을 보인다.「겸양어」는 교과서 Ⅱ에서 1.2%로 전체 교과서에서 가장 낮게 분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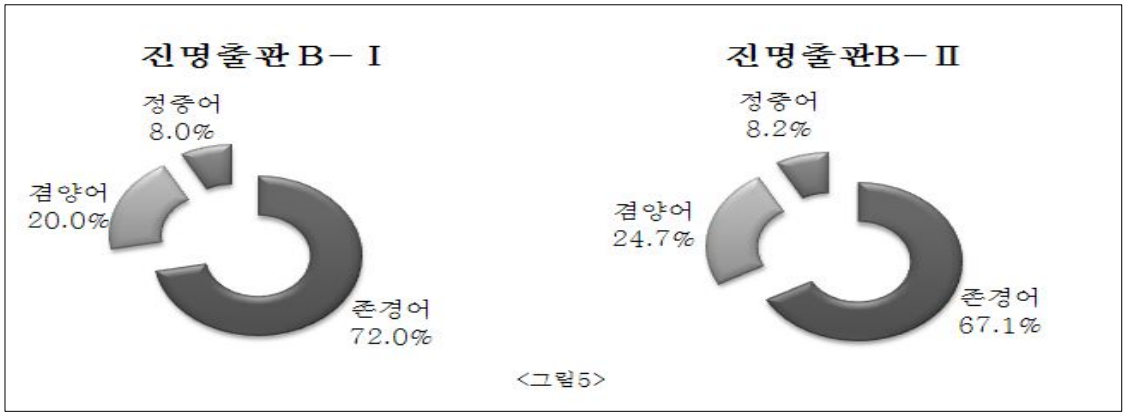
4) 블랙박스 Ⅰ, Ⅱ



<그림4>

블랙박스Ⅰ, Ⅱ에서는「존경어」,「겸양어」,「정중어」의 순으로 구성 비율을 보였다. 교과서Ⅰ, Ⅱ에서는 전체적으로 존경어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타 교과서에 비해「존경어」,「겸양어」,「정중어」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진명출판사 B-Ⅰ,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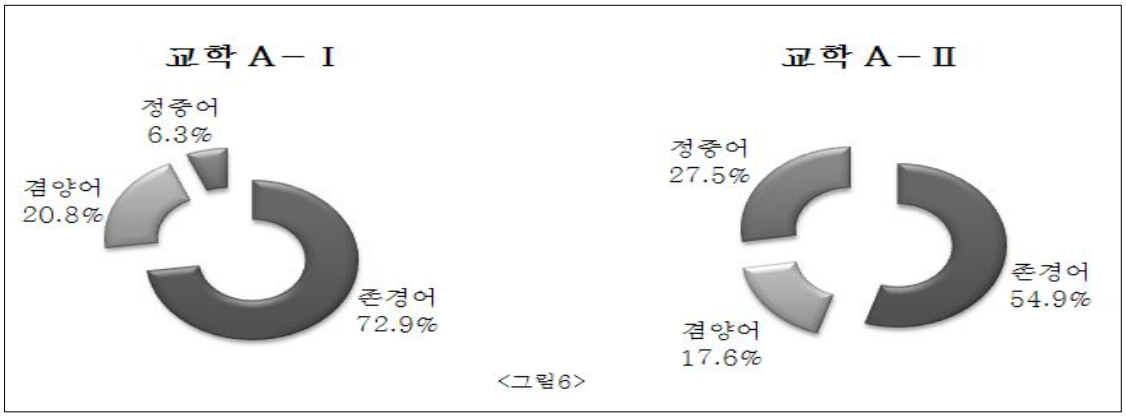


<그림5>

진명출판사 B-Ⅰ, Ⅱ에서도「존경어」,「겸양어」,「정중어」의 순으로 구성 비율을 보

이고 있으나, 타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교과서Ⅰ, Ⅱ에서 차지하는「존경어」,「겸양어」,「정중어」의 구성이 비슷한 분포임을 알 수 있다.

6) 교학사 A-Ⅰ, Ⅱ



<그림6>

교학사 A-Ⅰ에서는「존경어」,「겸양어」,「정중어」의 순으로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교학사 A- Ⅱ에서는「존경어」,「정중어」,「겸양어」의 구성별 비유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정중어」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정중어 접두사가 타교과서에 비해 많이 제시되었고 접두사 중에 미화어도 정중어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제5장 結論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중요한 언어특징 중의 하나이며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도 주요 학습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대 경어표현에 대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편된 6종(Ⅰ,Ⅱ 총12권)의 일본어 교과서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학교 문법에 의거한 경어표현을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로 크게 3분류하고, 각 교과서의 경어의 사용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각 교과서별로 품사별(형태별)경어의 빈도를 조사하여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3분류법에 따라 존경어부터 정리해보면, 존경어는 상대방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말로 화제의 인물을 높게 대우한다.

다시 말하면, 화제의 인물이나 상대가 속해있는 사물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존경어 표현 중에서 대명사 표현은「あなた」,「かた」,「せんせい」,「どなた」가 수록 되어 있었으며,「せんせい」표현이 61.1%(259)로 가장 높았다.

블랙Ⅱ가 43회의 빈도로 가장 높았고, 블랙Ⅰ이 10회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접두사로는「お＋명사」,「ご＋명사」,「お＋형용사」,「お·ご+형용동사」의 형식중에서「お＋명사」형태가 85.5%(26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학AⅠ이 39회의 빈도로 가장 높았고, 진명BⅠ이 7회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접미사는「～さん」,「～さま」,「～方(がた)」의 표현 중에서「～さん」의 표현이 98.2%(1708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블랙Ⅱ에서 198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한Ⅰ이 74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어동사는「いらっしゃる」,「おっしゃる」,「くださる」,「なさる」,「召し上がる」의 표현들이 나타나 있었고, 이 중에서「いらっしゃる」가 57.6%(132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블랙Ⅱ에서 27회로, 천재Ⅰ과 교학AⅡ에서는 각3회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くださる」가 31.5%(72회)로 나타났다.

문법적　경어동사로는「お(ご)～になる」,「お(ご)～くださる」,「～てくださる」,「お～です」의 표현들 중에서「～てくださる」가 81.1%(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お(ご)～になる」로 총 10.8%(80회)의 빈도를 보였는데「～てくださる」와 무려 524회의 빈도차가 나고 있었다.

교과서에서는 대한Ⅱ에서 82회로 가장 높았으며, 진명BⅡ가 31회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조동사 「れる,られる」표현은 진명BⅡ에서 하나의 예문과 지학Ⅱ에서 부록부분의 조동사의 설명부분의 예시문 밖에는 찾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겸양어는 언어주체가 속하는 사물이나 사항을 겸양하고 비하시켜 상대적으로 대상이 되는 상대를 높여주는 의미를 나타낸다.

겸양동사는「いたす」,「申す」,「まいる」,「おる」,「うかがう」의 표현들이 나타나 있었다.

그 중「申す」가 2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학AⅠ이 5회로 가장 높았고, 지학Ⅰ과 천재Ⅱ 그리고, 블랙Ⅰ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보조동사는「お(ご)～する」,「お(ご)～いたす」,「ていただく」의 표현들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お(ご)～する」형태가 11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과서 블랙Ⅱ가 2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천재Ⅱ가 1회의 빈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중어는 직접 대화하는 상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말투를 정중하게 함으로써 경의를 나타내는 경어표현이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표현방식은 접두사와 조동사「です」,「ます」,동사「ござる」, 보조동사「~でございます」로 구분되는데 접두사의 표현으로 「お · ご」가 있었다.

「お(ご)+명사」표현은 120회로 나타났고, 교과서 교학AⅡ에서 24회로 가장 높게, 대한Ⅰ에서는 2회의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상 각 교과서의 경어표현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어휘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어표현이 출판사에 따라 각각 다르게 취급되고 있었으며, 경어의 용례가 특정한 과에 그리고 한 표현에만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
또한, 경어 표현의 대상이 될 만한 상대로는 선생님이나 친구의 가족 정도로 제한되어 소개되고 있어 일본어의 상대체계가 갖는 독특하고 폭넓은 사용범위를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경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습득해 나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폭넓은 사용범위와 실생활 소재의 선택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장면으로 제시, 경어표현을 고르게 다루어 분산시킴으로써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경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교과서에 재구성이 필요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경어 표현의 도입현황을 통한 결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과서 Ⅰ, Ⅱ에서 경어 표현의 순서가 일률적이지 않고, 대부분 후반부의 특정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반복훈련 수업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 교육 현장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교과 과정과 그에 맞춰진 시간에 다양한 표현과 문형을 학습하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일본인과의 원활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는 초급 단계에서부터 경어의 문법적인 설명 보다는 일본의 문화에서 비롯된 경어의 체계, 한국과 일본의 경어에 관한 다른 특징을 설명하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단계로 그 범위를 넓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특정한 과에 집중적으로 경어표현을 출현시켜 반복적인 훈련을 하기 보다는 여러 과로 분산시켜 단계별로 나누어 다양한 경어 표현을 소개한다면 일본어를 배우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어표현은 어렵다' 는 부담감 보다는 좀 더 익숙하고 바람직한 경어표현을 구사 할 수 있을 것이다.

参考文獻

日本語教育学会,『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 大脩館書店, 1998

辻村敏樹,『敬語の用法』, 角川書店, 1991

辻村敏樹,『敬語論考』, 明治書店, 1992

奥山益郎,『状況分類別敬語用法事典, 2000

奥山益郎,『敬語用法事典』東京堂出版, 1995

日本語教育学会, 小川芳男 外, 『日本語教育事典』, 2000

金仁炫, 『한·일 양어의 대조연구와 일본어 교육』, 어문학사, 2004

교육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2국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오미선 外,『일본어 문법 level up』, 다락원, 2004

백동선 外,『일본어학의 세계』, 도서출판 박이정, 2002

안용주 옮김,『일본어교육방법론』, 시사일본어사, 2006

조덕희,「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경어표현에 대한 연구」부산외대, 2008

박영량,「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경어 연구」동아대, 2007

김혜영,「현행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 나타난 경어표현 분석」 한남대, 2006

신원호,「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 나타난 경어표현에 관한 고찰 - 제7차 교육과정 일본어 Ⅰ을 중심으로」 영남대, 2006

김혜련,「일본어 교육을 위한 일 고찰 -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건국대, 2005

허근무,「한·일 양국 경어의 대조연구」 대전대, 2003

교학사Ⅰ, 유용규 · 김우연 · 후쓰카이치 소, 2003

교학사Ⅱ, 이봉희 · 김남익, 2004

대한교과서 Ⅰ, 김숙자 · 이경수 · 어기룡 · 사이토 아사코, 2002

대한교과서 Ⅱ, 김숙자 · 이경수 · 어기룡 · 사이토 아사코, 2003

블랙박스 Ⅰ, 한미경 · 조성범 · 이영환 · 津崎活一, 2002

블랙박스 Ⅱ, 한미경 · 조성범 · 이영환 · 津崎活一, 2003
지학사 Ⅰ, 김효자 · 박재환 · 정용기, 2003
지학사 Ⅱ, 김효자 · 박재환 · 정용기, 2003
진명출판사 Ⅰ, 유길동 · 여선구 · 조문희 · 가이자와 도시코, 2002
진명출판사 Ⅱ, 유길동 · 여선구 · 조문희 · 가이자와 도시코, 2003
천재교육 Ⅰ, 양순혜 · 이원복 · 위혜숙 · 이향진, 2003
천재교육 Ⅱ, 양순혜 · 이원복 · 위혜숙 · 이향진, 2004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	학 번	20088054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민희	한문: 金玟希	영문 :Kim Min Hee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1041-3 해뜨는집 4층				
연락처	E-MAIL : yearn23@naver.com				
논문제목	한글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경어표현에 관한 연구 영어 :A Study on the Honorific Expressions in Highschool Japanese Textbook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

2011년 1월 7 일

저작자: 김 민 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